

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중국정부, 보험회사 자금 투입으로 경제성장 견인

□ 최근 중국정부가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하자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(이하 보감위)는 보험업계도 보험업이 갖는 특수성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천명함.

- 합법적이고 투자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 자금이 투자진작, 소비촉진, 수출안정에 지원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자산운용 수익율 제고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해야 함을 강조함.
- 이를 위해 보험회사 자금으로 국채와 양질의 회사채를 매입하여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하고, 장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보험자금이 직간접적으로 자본시장에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자국 내 자본시장의 안정화에 보험업계가 노력할 것을 주문함.
- 아울러 채권 구매 방식으로 교통, 통신, 에너지 등 사회 간접 자본 확충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편, 에너지 산업과 같은 국가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대형 국유기업의 지분을 매입하여 해당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보감위도 적극 지원할 것을 다짐함.

□ 보감위는 보험이 경제성장 뿐 아니라 보험 고유의 보장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 안정화에도 일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.

- 농촌지역의 경우, ‘삼농(농촌, 농업, 농민)보험’을 적극 발전시키고 정책성 농업보험 보장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, 가입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도 적절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농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정부 모두의 노력이 절실함.
- 도시지역 역시 사회간접자본 확충, 재해지역 재건 등 대형 프로젝트의 위험을 보장하고, 주택과 자동차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확대가 내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업계 구성원 모두의 분발이 요구됨.

(금융시보 11/18)

중국보험보 11/19)